

연론 언론중재위원회 NEWS 사람

송년 특집

2017 언론계를 돌아보며

세상읽기

눈과 눈물

옛 그림과 차 한잔

이름 없는 민초들의 숨씨, 민화

2017
Vol.210

12





이 사진은 내가 찍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검고 둥근 것은 돌로 된 노래비의 뒷모습이다. 어떤 조각가가 이 비를 만들었다. 앞에 있는 것은 나뭇가지다. 바람에 꺾어지고 부러졌는데 아직 땅에 떨어지진 않았다. 주도적인 역할은 거미가 만든 거미줄이다. 거미의 의도와는 달리 허망하게 나뭇잎이 매달렸다. 바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10여 분 정도 렌즈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시각각 모양이 바뀌었다. 이곳은 담양 관방제림의 조각공원이다. 한 달 전이니 지금 가면 아마도 떨어져 버렸거나 새로운 작품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볼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보니 이게 바로 작품이다. “피카소 저리 가라”라고 흐뭇하게 생각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에 넣어보니 난데없이 타이어가 나왔다. 이 사진은 분명 내가 찍었으나 자연에 양보하여야 한다. 작품명 <얼굴> by ‘나뭇잎과 거미’ (feat. by ‘바람’)

CONTENTS

2017 December Vol.210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goo.gl/t9Kjeu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조남태
발행일 2017년 12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 02 **클로즈업**
 - 04 **송년 특집**
2017 언론계를 돌아보며
 - 06 **심리학브런치**
하지 않아도 되는 말
 - 07 **언중노트**
담론
 - 08 **언론중재위원회 NOW**
평화로운 공존의 이유, 약자에 대한 존중
 - 09 **세상읽기**
눈과 눈물
 - 10 **언론법 이모저모**
브리핑 권하는 사회
 -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공감' 설득의 시작
 - 12 **옛 그림과 차 한잔**
이름 없는 민초들의 숨씨, 민화
 -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조정중재	시정권고	선거기사심의	교육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 저널리즘 혁신의 키워드

2017 언론계 10대 이슈

- | | |
|--------------------|---------------------|
| 0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06 언론-포털 간 상생모델 확대 |
| 02 전통매체 디지털 전략 부심 | 07 네이버-구글 '역차별' 공방 |
| 03 소셜미디어 소통과 윤리 논란 | 08 AI, 알고리즘 등 기술 진화 |
| 04 언론 신뢰도 추락 | 09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
| 05 네이버 기사 재배포 파문 | 10 서비스 저널리즘 |

2017년 언론계는 광장의 촛불로 마침표와 쉼표, 느낌표의 변주를 올렸다.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저널리즘 혁신에 대한 열망과 성찰이 가득했다. 혁신을 향한 이슈는 설 새 없이 이동하며 숨가쁜 장면을 담았다.

먼저 KBS, MBC 등 공영지상파방송사는 언론의 공공성 후퇴로 싸늘한 여론에 맞닥뜨렸다.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 구상원들은 5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에 소속된 수백여 명의 언론학자들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이례적 장면도 기록됐다.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은 콘텐츠의 '상업화' '저질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의 뉴스신

회도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론다양성, 참여성, 창의성 등 정책 방향의 전환을 기대하는 에너지가 응축됐다. 시민이 참여하는 이사회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모델이 다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는 날선 반목의 진풍경을 연출했다. 독자의 질문과 비판을 외면하고 되레 반격하는 기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른바 '한경오' 논란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독자 간 폐쇄적 소통은 갈등의 골을 깊게 남겼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윤리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통매체의 '디지털 혁신' 논의도 변곡점을 맞았다. 기자의 디지털 관여도를 높이는 융합형 접근, 신문과 온라인을 구분하는 '투 트랙' 등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됐다. '성과'에는 의문 부호가 달렸고, 공감대가 부족한 뉴스룸에는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쌓였다. 포털사이트가 독식하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지속성, 항상성, 일관성을 담보하는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

미디어 업계 안팎의 진통은 냉정과 열정을 오갔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크고 작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분투가 빛났다.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저널리즘의 오랜 소명을 곳곳이 지켜낸 JTBC, 해직 기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와 심층 탐사 보도물은 네트워크의 뉴스피드를 타고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

반면 거대 기술 플랫폼의 장막 뒤는 싸늘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포츠 채널의 담당자가 이해 당사자의 '기사 재배포' 민원을 처리해준 일이 드러났다. 또 자동차 주재판 에디터의 부적절한 처신도 구설수에 올랐다. 포털에서 뉴스소비는 포털 뉴스편집자의 '기사 배열'에 의해 좌우되고 또 역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2009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서 포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도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공표하는 등 독자의 권리보호를 내세웠으나 이번 일로 뉴스서비스 전반의 신뢰에 금이 갔다. 네이버는 일단 사람의 손이 아니라 로봇이 자동으로 기사를 배열하는 것으로 뉴스서비스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플랫폼의 통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어떻게 확대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통매체와 포털이 미디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활을 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투자 자원 부족으로 자체 역량 강화가 어려운 국내 언론은 현실적으로 플랫폼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주도한 네이버는 모바일 주재판 합작회사 확대에 이어 구독 펀드 조성,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모바일 채널 신설 등 뉴스 생산자와 다양한 상생 모델을 올해만 여러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구글코리아를 향해 망 사용료와 세금

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다. 미디어 생태계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면 책임을 다하라는 공격이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건드린 것이다. EU는 2013년 상거래, 콘텐츠 등 전자적 영역의 공급 장소를 '공급자'의 위치에서 '소비자'의 위치로 바꿔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네이버-구글 갈등은 시장획정이 불분명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심중한 불씨를 남겼다.

브레이크 없는 기술 진보의 드라마는 인공지능(AI) 혹은 알고리즘으로 수렴됐다. 초연결성, 빅데이터와 함께 저널리즘의 양태를 바꿔놓는 동력으로 부상했다. 광범위한 데이터의 덩어리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탐사보도와 인터랙티브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졌다. 자동화한 기사 작성과 뉴스 추천 서비스, AI 스피커에 탑재하는 뉴스 등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정교할수록 '필터버블(Filter Bubble)'의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독자의 기호나 취향에 맞춘 뉴스와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지적 편향'을 심화하는 현상이다. 기술 의존이 저널리즘을 왜곡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올해도 예외 없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에 검색 종립성,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란 묵직한 사회 의제가 등장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짜뉴스(fake news)'의 범람도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언론도 여러 차례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아써 오보 파문을 빚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는 19대 대통령 선거보도와 관련 다수 언론사, 네이버와 팩트체크 협업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참여 언론사의 대응 수준이 균질하지 못하고 검증 결과에 오류의 여지가 남지만 팩트체크 관련 첫 협업 사례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상품 추천서비스 '와이어커터(The Wirecutter)'를 인수하며 깃발을 든 <뉴욕타임스>의 '서비스 저널리즘'도 화제였다. 여행기방 쓰기, 연인과 행복하게 사는 비결 등 독자의 삶에 근접한 정보와 가치에 주목하는 콘셉트다. 독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하는 '독자 퍼스트' 전략이다. 국내 언론도 서브 브랜드를 내세우며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생산했다. 그러나 독자에 대한 '앓'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탄탄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네이티브 광고는 크고 작은 언론사에서 '현 재진행형'이다. VR을 비롯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도 풍성한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 플랫폼, 기술, 신뢰는 미디어 흐름에서 놓칠 수 없는 과제이다. 소통과 협력의 열쇠로 어두운 문을 열어야 한다. 좋은 저널리즘이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고 좋은 '관계'가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된다. 세상사의 사필귀정이 언론의 대지에 이르길 기대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굶주림보다 영양 과잉으로 발생하는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한글을 못 배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좋은 책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글과 말이 넘쳐납니다. 좋은 이야기를 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을 가려들어야 할지 선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언어의 과잉, 문자의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의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정, 생각,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할 수 있는 부분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우울해하지 마”라는 말은 우울한 분들이 가장 절망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가족이 우울해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거나 전과 다르게 짜증이 섞인 표정을 하고 있다면 걱정되는 마음에 건네는 말이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볼까요? 과연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우울하고 싶어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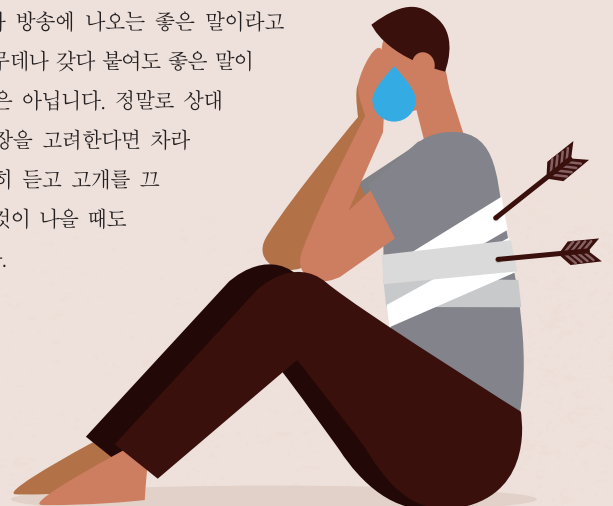
“불안해하지 마” 역시 도움이 안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불안은 누를수록 심해지므로 걱정을 부르는 생각 대신 다른 주제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불안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반대의 걱정을 해보는 것이 불안에서 탈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슴이 자주 아픈데 심장질환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만 몰두해 있다면 차라리 반대의 걱정을 제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데 심장질환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문장을 반대로 바꿔서 걱정해보는 것입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았는데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지불한 검사비용과 휴가 낸 것을 후회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걱정해보는 것

이 감정을 조절하라는 말보다 차라리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답답함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말 중에는 “다 내려놓아” 또는 “마음을 비워”도 있습니다. 힐링과 명상 열풍으로 인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좋은 말이며 마음챙김(Mindfulness)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감정에 대해 조절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제 잘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인데 마음을 비우라니 오히려 더 초조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불안해하지 말라’나 ‘우울해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으로 꼽는 말은 바로 “용서해”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3자도 아닌 가해자가 은근히 용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외도를 일삼던 남편과 그런 남편을 편들던 시어머니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시어머니가 병드셨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용서해라”며 모든 것을 잊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한테 화풀이 삼아 심한 폭력을 일삼아 놓고 “용서해”라고 말하는 부모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상처받습니다. 나이, 상하관계를 불문하고 용서는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것이지, 당연한 듯이 명령조로 말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책이나 방송에 나오는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담론 * 담벼락을 논하다

담벼락. 인터넷과 함께 자라온 탓인지 이 단어를 들으면 빨간 벽돌이나 열기설기 얹힌 담쟁이 넝쿨이 아닌, '좋아요'와 엄지손가락으로 대표되는 파란색의 SNS가 먼저 떠오른다. 사람들은 이 파란색 담벼락이라 불리는 각자의 공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번 사건은 이 담벼락에서 시작되었다.

신청인은 사회적 논란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지인을 지켜보다 안타까운 마음에 늦은 밤, 자신의 담벼락에 찔막한 심경을 담아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린다. 다음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된다. 한 언론사에서 그가 담벼락에 올린 글의 캡처화면과 내용을 소재로 기사화하였고 다른 언론사도 연이어 해당 내용을 보도하여 인터넷뉴스란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사적인 공간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사적인 글이 기사화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니 마치 서랍 속에 숨겨둔 자신의 일기장이 들춰진 기분이었다고 한다.

언론사는 SNS에 게시한 글을 기사화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NS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파 또는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NS에 남긴 글이 기사화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SNS는 공개된 공간일까, 사적인 공간일까. SNS라는 공간의 성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 해답은 무심결에 펼친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전은 '담'을 '일정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흙, 벽돌 따위로 쌓아올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즉 담벼락은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에 있고 그래서 안과 밖, 양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을 짚어 보니 담벼락의 의미가 매우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SNS를 게시판으로서의 담벼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언론사에게 담벼락은 광고나 공지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장(場)이다. 따라서 이런 공론의 장에서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언론사의 입장도 공감이 된다.

신청인에게는 담벼락은 어떤 의미일까. 신청인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안쪽 담벼락에 본인의 감상을 걸어 둔 것이며, 집 안에 걸어 둔 액자가 바깥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기 어렵듯 본인의 글이 기사가 되어 타인에게 공개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담벼락 바깥에 서 있던 언론사는 어쩌다 엿보게 된 신청인의 담벼락 또한 당연히 바깥 담벼락으로 보였을 것이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는 탓에 이들은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삶의 면면에 SNS가 젖어 들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요즘, SNS로 인한 부작용 역시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고민 한 번이면 그 부작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는 담벼락은 안과 밖 중 어느 곳일까? 담벼락 너머에서는 내가 마주한 담벼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평화로운 공존의 이유, 약자에 대한 존중



호주언론평의회



ABC 방송국

마라에(Marae),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예식을 올리거나 장례를 치르기도 하며 마을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말하자면 마오리 부족의 마을회관 같은 곳. 아무나,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없거나와 함부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 지켜야할 규율이 많은 곳이다. 그만큼 귀한 손님을 특별하게 모시는 곳이란다. 뉴질랜드 공영방송사 TVNZ의 커뮤니케이션 팀장 조지 힐스가 위원회 시찰단을 마오리 전통 조각상으로 장식한 공간으로 안내하며 이곳이 'TVNZ의 마라에'라고 소개했다.

TVNZ 마라에 한쪽 벽면에는 마오리의 사진을 걸어놓았다. 뉴질랜드 언론사(史)에 한 획을 그은 마오리 기자들의 사진을 걸어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했다. TVNZ가 마오리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방식이었다. 뉴질랜드가 마오리 문화와 평화로운 공존을 표방하듯, TVNZ 역시 마오리 전문 방송을 주당 9시간을 편성할 만큼 마오리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웰링턴에서 만난 존 한스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의장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론평의회에는 법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있고 비교적 젊은 마오리 변호사도 있는데, 이처럼 법조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마오리 변호사가 원로 법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했다.

다문화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은 호주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1992년 일명 '마보 판결(Mabo Case)'을 계기로 '애버리진(aborigine)'이라 일컫는 호주 토착민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며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게 되었다. 이후 다문화 존중을 위한 노력이 호주 전체로 확산되면서 호주 미디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위원회가 방문한 호주 ABC 공영방송사는 원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뉴스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원주민 고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애버리진 관련 시안을 다루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원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

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어쩌면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다각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위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이 아닐까? 메리 메이저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사무처장이 내민 한 장의 명함을 보고난 뒤에는 위원회가 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어쨌든 익숙한 그 명함은 우리 위원회 중재위원 중 한 분의 명함이었다. 2012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유럽신문평의회 연례회의에서 만났던 반가운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위원회 시찰단 방문 소식에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 당시 받았던 명함을 찾아 왔다고 한다. 면담 뒤 주고받은 "또 뵙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왠지 예의상 으레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5년 전의 만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위원회의 방문이 또 다른 계기가 되어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길 기원하면서, 마오리의 언어를 빌려 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다음 만남까지 kia ora²⁾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해외 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목적으로 호주의 언론평의회 및 ABC방송사, 뉴질랜드의 언론평의회 및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사를 방문했다. 양인석 위원장과 황정근 대전·충북사무소장, 이윤정 예산회계팀 직원이 8박 10일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1) 호주 원주민들의 법적 지위와 호주의 사법체계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판결이며, '마보 사건 소송 관련 문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2)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뜻의 마오리 작별인사



눈과 눈물

대설(大雪)이었습니다. 실록은 그 날 눈이 크게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임금은 전날 밤늦게 남한산성에 들어왔습니다. 강화도로 옮기려 새벽에 은밀히 산성을 나서는데 눈보라(雪風)가 휘날리고 바람이 찼습니다. 험한 빙판길에 말조차 발을 담지 못했습니다. 내려서 걷던 임금은 산성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남한산성의 어떤 날 밤 아홉 시, 이판 최명길은 임금을 찾아와 무조건 행복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행복 운운한 이야기를 사책(史冊)에 담아두면 곤란하다고 이판이 아뢰자 임금은 사관에게 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관은 쓰지 못하게 하자는 이판의 말과 쓰지 말라는 임금의 말을 사책에 글로 명토 박았습니다. 승정원일기도 두 사람이 초경에 만났다고 적었습니다. 이틀 후 대설이었습니다. 행복하겠다는 문서가 찢어진 날입니다. 최명길이 쓴 행복 문서를 임금과 대신들이 검토하고 최명길이 수정했습니다. 예판 김상헌이 그 글을 찢은 뒤 통곡합니다. 눈이 크게 온 그 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실록은 전해줍니다.

김상헌이 국서를 찢은 다음 날 청나라 군대는 성 안에 대포질을 합니다. 홍이포였습니다. 포탄에 맞아 사람이 여럿 죽었습니다. 닷새가 지난 1월 24일 홍이포 알이 점점이 행궁에 날아왔습니다. 다음날도 종일 대포 소리가 그치지 않아 민심이 흉해졌습니다. 실록에 적힌 포탄의 크기는 거위알 만합니다. 김훈이 지은 <남한산성>엔 수백만 한 홍이포 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성암이 아홉 권으로 쌓은 <남한산성>에 떨어진 홍이포 탄환은 모과 크기였습니다. 기외집 세 책을 꿰뚫고 땅속으로 능히 한 자를 들어가 박혔다고 썼습니다. 다른 책에는 행궁 천장을 뚫은 포탄이 바닥에 깊이 처박혔다고 적었습니다.

큰 눈이 내리고 보초를 선 군졸이 얼어 죽은 날, 대포알이 간단없이 날아와 성안에 박힌 날, 모기가 산을 짊어진 위태로운 날에도 남한산성 신하들은 진영을 짜고 말대포질에 여념 없었습니다. 저 자들의 목을 베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목을 치소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찰며 행복한 왕은 발가운데 앉혀졌습니다. 해 질 녘에야 겨우 서울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 집니다. 어렵사리 빈 배 두 척을 구해 강을 건널 때 왕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먼저 배에 오르겠다는 신하들이 여럿이었습니다. 포성 소리 자욱했던 신하들의 말대포질은 결국 헛방이었던 것입니다. 저 자들의 목을 베소서, 그리고, 오로지 저 자들의 목만 치소서. 항서를 만들 때 산성의 임금은 신하들의 속마음

과 결말이 다름을 안다고 이미 일갈했지요.

눈 내리는 날의 눈물은 굴곡진 역사의 정수리 질곡입니다. 남한산성 같은 국가적 환난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술버릇이 고약한 형은 눈발과 선산과 급기야 누대의 집까지 홀랑 탕진해버립니다. 어미는 남의 것이 된 자기 집을 빌어서 막내아들에게 밥 한 그릇을 지어 먹입니다. 밤 같은 새벽의 서글픈 눈길을 어미와 아들이 동행합니다. 새벽어둠 속 무정한 버스는 아들을 덜컥 뉘아쳐서 떠나버리고 늙은 어미는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서두를 것 없는 희薄的 길을 어미 혼자 서둘러 돌아옵니다. 굶이굶이 산속 눈길엔 어미와 아들이 걸어온 발자국들만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도란도란한 아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리운 발자국에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어미는 눈길을 걸어옵니다. 이청준의 그 <눈길>을 두 번 걸어봤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싸야 할 대포를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대포를 쏘서 공궁에 빠뜨린 책임을 부인하곤 합니다. 오히려 백성을 향한 자기들의 대포질이 나라를 구하는 행위였다고 부릅니다. 가히 남한산성 홍이포 소리와 방불하는 말대포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합니다. 허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싸야 할 대포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 동원한 이들도 준비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호위하고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데 민주주의 대포를 악용했습니다. 그들도 그때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매도합니다. 모기가 짊어진 대포를 끌어다가 외적을 막자던 남한산성의 헛된 구호 같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우주가 오는 일이라고 시인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한 우주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수습자 영결식이 열린 다음 날 세월호가 가려던 제주에 첫눈이 왔습니다. 발인을 했던 날은 희생자들을 태운 배 출발지 근동에 첫눈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시인이 짓고 요절한 가수가 부른 노래는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들에게 '부치지 않은 편지'를 보내며 말합니다. 눈물이 강물 되고 사랑이 노래될지니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가 거뜬해져서 눈 내리는 날 눈물 흘리는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브리핑 권한하는 사회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면, 환자의 보호자와 가족들에게는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진다. 수술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길라도 하면 긴장감은 끔찍한 초조함으로 변한다. 그 애타는 심정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사가 브리핑하는 일은 정부 부처나 수사기관에 비해 드물다. 생각해보면, 환자의 상태라든가, 의학적 치료정보가 늘 아쉬웠던 마당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의료소송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정보의 편재 아니었나.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한 것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엔 뜻밖에 기생충과 분변, 옥수수가 있다. 의사는 브리핑에서 왜 기생충과 분변, 옥수수를 언급했을까?

이번 논란이 다소 생소하지만 따지고 보면 언론법 영역에서 항상 문제되곤 하는,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문제다. 의사의 브리핑을 문제시하는 쪽에서는 환자의 인격권 침해에 방점을 찍었을 것이고, 정당했다고 여기는 쪽에서는 알권리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다.

우선, 이번 사건의 특수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의사에게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관한 누설금지 의무가 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 이 의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법 제88조). 그러나 면책의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 의사의 브리핑이 의료정보누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면 형법상 정당행위(제20조)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귀순 병사의 상태에 관해 이 병사의 사실상 보호자였던 정부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의학적 처치 상황을 공식 브리핑한 것에 대해 정보누설금지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인격권 침해 유형에서 가장 흔한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은 공

공연하게 이루어진 특정인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람 몸속에 있던 기생충과 분변, 옥수수 따위의 미미한 것들은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어렵다. 가난과 위생의 문제가 부끄러울 수는 있어도 적어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 개인의 병명이라든가,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민감정보'로 취급되고 사생활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들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내밀영역'에 비해 공개의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예컨대, 유산으로 인해 휴직한 교사의 유산사실이라든가, 유

산 원인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의 비밀로서 지켜져야 하며 이를 함부로 공개한 언론사가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 동의 없이 암 환자의 사진과 병명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물론, 반대 사례도 있다. 2013년 세계적인 F1 선수였던 미하엘 슈마허가 스키를 타다가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그의 상태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고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슈마허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의학적 견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당사자의 공인성 유무가 사생활 침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의사는 또 다른 브리핑에서 “저는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의사의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논란이 되었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에 있는지도 모른다. 외과 의사가 정작 있어야 할 곳은 브리핑룸이 아닌, 수술실이며 그의 손에 들려져야 할 것은 마이크가 아닌, 칼이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세간의 지나친 관심과 의사의 브리핑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공감’ 설득의 시작

영화 <택시운전사>에 숨겨진 설득이야기 II

만섭 (구타당하며) 살려주십시오. 저 빨갱이 아닙니다.
 사복군인 네가 빨갱이가 아니면!
 만섭 저 진짜 빨갱이가 아닙니다. 전 광주 사람도 아니에요. 서울사람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384번지 3통 8반...
 사복군인 알아. 서울택시... 독일기자 태우고 왔다는 그 빨갱이가 너잖아. 돈 몇 푼에 나라 팔아먹는 잡종 같은 새끼. 그러면서 빨갱이가 아니라고?

평소 시위하는 대학생들에게 철이 안 들었다며 나무라던 만섭은 본인 이 빨갱이로 몰리게 되자 비로소 광주 시민들의 상황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때의 깨달음은 순천으로 홀로 떠났던 만섭이 광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놓여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이해’라고 말합니다. 공감적 이해를 위한 시도를 통해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설득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조용히 나가는 만섭과 이를 눈치챈지만 잡지 않는 힌츠페터)

광주택시기사 (도망가려는 만섭을 세우며) 공수 놈들이 서울 택시는 다 잡아들인다고 안혀요. 길도 모르는 양반이 가면 간다고 말을 했어야지. (광주택시 번호판을 건네며) 이거 받으서. 그라고 이 길은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요. 기자 양반이 이것도(택시비) 줍니다.

만섭 아유, 제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광주택시기사 오메, 택시가 손님을 태웠으면 택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거 암말 말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두서. 얼른 가요. 딸래미가 그냥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겠네.

만섭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광주택시기사 형씨가 뭐시가 미안하네. 나쁜 놈들은 저기 따로 இரு면... 아이고, 날씨 지랄 맞게 좋구면. 난중에 딸내미하고 한 번 놀러 오셔. 우리 아들내미하고 소풍 한 번 가게.

혼자 떠나는 만섭을 붙잡지 않고 보내주는 이 장면. 어떤 선택을 하든 상대방을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

여하고 있는데요. 만섭은 광주를 무사히 빠져나와 순천에 당도했지만 그곳에서 광주에 대한 거짓된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섭은 결국 서울이 아닌 광주로 차를 돌립니다. 광주에 빚진 마음, 설득에서 중요한 요소인 ‘상호성의 법칙’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광주택시기사 어쩐다고 왔어? 으호호호. (죽은 재식을 보며) 공수 놈들이 끌고 가다가 중간에 눈을 감으니까 그냥 논두렁에 버리고 갔다 양혀. 광주에는 관이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이 관 가지러 갔어라. 아이고...

만섭 (힌츠페터를 일으켜 세우며) 왜 그러고 있어? 이거 다 찍어야지. 약속했잖아. 알리겠다고. 뉴스가 나가야 그래야 바깥사람들이 알 거야. 당신 기자니까 찍어줘. 재식이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어서!

광주로 다시 돌아와 찾아간 병원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만섭은 재식의 죽음과 망연자실하며 앉아 있는 힌츠페터를 보게 됩니다. 울분에 찬 만섭은 축 처져 있는 힌츠페터에게 이 참혹한 상황을 어서 카메라에 담으라고 다그칩니다. 독일인인 힌츠페터가 만섭의 그 말을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함이 가득한 만섭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행동에서 힌츠페터 역시 만섭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때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더 효과가 큰 법이기도 하죠.

지난 호에 이어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타난 설득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 영화 자체에 설득당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배우들의 표정을 통해 나에게 진하게 박혔다.” 이 영화를 본 한 관객의 후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득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는지요? 올 한해 [영화 속 설득이야기]를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를 이토록 익살스럽고 사랑스럽게 그린 민족 있나요?



사나운 호랑이를 익살스럽게 그린 조선 민화 운포필호도, 국립중앙박물관

호랑이가 익살스럽게 그려진 그림이며 모란꽃이 탐스럽게 핀 그림, 많이들 보셨지요? 이름 없는 민초들이 아무런 욕심 없이 그린, 가장 한국적인 그림 '민화'(民畵)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 그림을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지만 일찍이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독일의 눈 밝은 미술애호가들이지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민화에 매료돼 이를 수집하고, 그 아름다움을 탐구했던 일본의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는 "훗날 이 그림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박물관과 화랑에서 민화특별전을 연달아 열고 있고, 미술경매회사들은 좋은 민화를 경매에 올리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 민화의 인기가 꽤 높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900여 점의 전통민화와 궁중화를 집대성한 화집도 최근 출간됐습니다. 우리 옛 민화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온 민화연구가 정병모 경주대 교수를 비롯해 30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합심해 '한국의 채색화'(전 3권)란 책을 펴낸 것이지요. 일본에서는 '조선의 민화(李朝의民畵)'라는 화집이 1975년에 발간됐는데, 정작 한국엔 제대로 된 전집이 없었으니 늦은 셈입니다.



원근법 등을 무시한 현대적 감각의 조선 책가도,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민화 책거리 8곡병풍, 부분, 종이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정병모 교수는 “조선시대 화단은 사대부들이 그린 수묵화 위주로 편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분야는 채색화죠.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 불화가 이를 입증합니다. 무채색 서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민화를 보여주면 이토록 다채로운 예술이 있었냐며 반색하지요”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체 높은 목객들이 그린 수묵화와 문인화를 조선 회화의 백미라고 배웠지요. 격조와 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민화는 ‘속화’라 칭하며 낮춰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묵화와 문인화가 클래식 음악이라면 활달한 생명력이 넘치는 민화는 대중음악에 해당됩니다. 클래식 음악이 우아하고 그윽하긴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서정, 담긴 것은 대중음악이지요. 인생살이 짝짱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무해주는 건 정겨운 팝뮤직이니까요.

민화는 해학과 익살, 파격과 즐거움이 있는 데다, 더없이 화려무쌍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잘 들어맞습니다. 가부좌 틀고 유학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니 유머와 풍자가 꿈틀대는 민화가 제격이지요. 바로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야나기 무네요시는 물론이고, 재일동포 건축가 이타미 준(유동룡), 화가 이우환 등은 옛 민화를 일찌감치 사들여, 생활 속에서 즐겼습니다. 이타미 준과 이우환은 ‘조선의 민화’를 집필하기도 했지요. 이우환은 또 자신이 수집한 조선 민화와 궁중화 120점을 파리의 기메동양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끄는 신비함과 독특한 매력은 세계 어느 미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요. 기메박물관은 이우환의 기증작을 중심으로 한국 민화 기획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화’라는 명칭에 대해 요즘 학자들은 “일본 연구자들이 붙인 이름이니 ‘채색화’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카소도 울고 갈 파격, 조선의 책가도

자, 그러면 민화의 매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옛 민화는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발한 상상력을 자유분

방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무병장수 같은 명제에 충실하면서도 상징과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적 색채도 배어 있고요.

여러 장르가 있는 우리 민화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책가도’입니다. 학문을 중시하던 조선의 전통이 책가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책들이 빼곡히 그려진 책가도 병풍을 사랑방에 놓는다면 그 주인장은 웬지 학식 있는 인사로 보일 겁니다. 책가도가 돈 많은 중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연유입니다. 책가도에는 책과 문방사우, 기물들이 원근법을 무시한 채 서가에 놓여 있습니다. 선반 없이 책과 붓통, 시계와 꽃병이 공중에 뱅뱅 떠 있는 ‘책거리도’는 피카소도 울고 갈 정도로 파격적이지요. 무질서한 듯하지만 어지럽진 않으니 그 경치가 대단합니다. 물론 책들이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 단정한 책가도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더없이 미니멀해서 현대적 조형미가 물론 풍깁니다. 유교의 덕목을 바다나 물에 사는 동물 이미지로 꾸민 ‘문자도’도 그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무장해제한 민화 속 호랑이

민화 속 호랑이는 까치와 노는 것도 모자라, 까치에게 짹짹매기도 합니다. 참으로 친근하고, 익살스럽지요. 해학을 마음껏 버무려 흥을 돋우는 그림입니다. ‘까치와 호랑이’는 민화는 물론이고 산신도, 탕화, 호랑이 부적에 두루 등장합니다. 우리 겨레의 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이콘이지요. 천하의 맹수인 호랑이를 이토록 익살스럽고, 천진난만하게 표현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호랑이 그림 다음으로 조선 후기와 조선 말엽에 인기가 많았던 그림은 화조화입니다. 색색의 커다란 모란이 화폭 가득 탐스럽게 그려진 모란도는 궁중은 물론 민간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지요. 궁중에선 큰 행사가 있을 때 커다란 크기의 모란도 병풍을 사용했는데 도상이 무척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문에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추정됩니다. 활짝 핀 모란과 봉우리를 적절히 안배한 왕실용 모란도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기이한 형태의 괴석을 활짝 핀 꽃과 곁들여 대조를 꾀한 솜씨도 돋보이고요. 반면에 민간용 모란도 병풍은 크기도 작고, 표현력도 한 수 아래입니다. 그래도 모란을 활달하면서도 거침없이 그려내 좋은 기운이 감돕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쁜 귀신은 쫓고, 경사로운 일이 이어지길 바라는 ‘벽사진경’의 마음을 꽃이나 새, 곤충이 어우러진 화조도에 담곤 했습니다. 이런 류의 그림은 생활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주기도 해 일석이조였죠.

행세해나 했던 집안은 큰 잔치를 앞두고 실력 있는 화가를 초청해 화조도, 모란도, 십장생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일종의 주문화인 셈입니다. 이런 풍습이 중인 및 서민층까지 이어져 조선 말기에는 각종 민화들이 그야말로 성시를 이뤘습니다. 생활 속에서 소망을 기원하고, 장식적 기능도 했던 민화는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해 그려진 가장 진솔하고, 가장 한국적인 그림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민화를 배우고, 연마하는 민화작가가 10만 명을 헤아리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는지요.

COMMISSIONERS >>> 위원동정



신임 중재위원 위촉

11월 9일자로 중재부장 2명이 위촉되었다.

중재부	성명	현직	임기
서울제5중재부	오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11.9. ~ 2020.11.8.
서울제6중재부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11.9. ~ 2020.11.8.

주정민 위원, 제31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출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11월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1대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주 위원은 “방송과 방송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여 방송학의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2018년 11월부터 1년이다.

홍은희 위원,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위촉

홍은희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이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관리 등의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의 안심정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다. 11월 15일 위촉장 수여식을 겸하여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홍 위원은 향후 운영 계획과 국내 영상보안시장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황용석 위원 <2017년 미디어 다양성 증진 국제컨퍼런스> 토론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11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7년 미디어 다양성 증진 국제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미디어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내외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위원은 게오르기오스 구날라키스 독일 미디어영역집중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독일 시청점유율 규제 제도의 배경과 방법, 변천사’에 대해 토론했다.

NEWS >>> 위원회 뉴스



위원회 · 한국언론법학회 공동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11월 16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법학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승선 중재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재판 중계방송 허용과 언론의 사법보도 관련 쟁점들을 다뤘다.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재판중계 허용 기준, 판단 주제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물리적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법관이나 재판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푸단대학교 국제컨퍼런스 참석

위원회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2017년 푸단대학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미래 : 미디어 생태학 및 빅데이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권덕진 중재부장(경기중재부), 이종세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조동수 중재위원(광주중재부), 김선남 중재위원(전북중재부)을 비롯하여 사무처 소속 임종우 팀장(기사심의팀), 장성원 사무소장(전북사무소), 이진아 차장대우(교육콘텐츠팀)가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데이터 저널리즘이 가져온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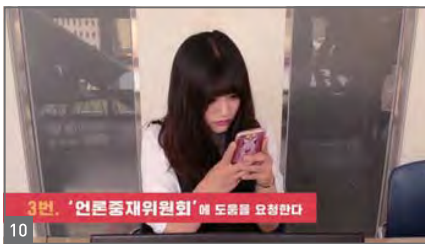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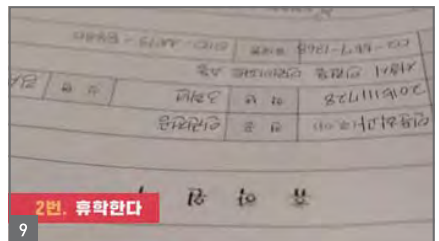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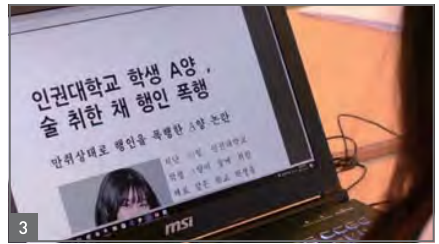


제2회 UCC 공모전 수상작

은상

주저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김민아, 박이은



'악성 루머 제조기' 잡으러
흙수저, 오지랖, 아이돌이 뭉쳤다?



인혜선 · 이진오 · 이소의 · 조수복 연출 | 김충근 프로듀서 | 신윤수 극본 | 우 은

촬영 | 민준기 동시녹음 | 한경택 분장 | 홍은령 의상미술 | 최경희 스크립터 | 박준영 로케이션 | 유위영 원안 | 신윤수 편집 | 김충근 슬레이트 | 박준영 시각효과 | 민준기 DJ | 민준기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